

2019년 8월 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공격적인 금리인하 기대 속 상승 전환

9월 FOMC 50bp 금리인하 확률 1주일 전(2%) 보다 상향된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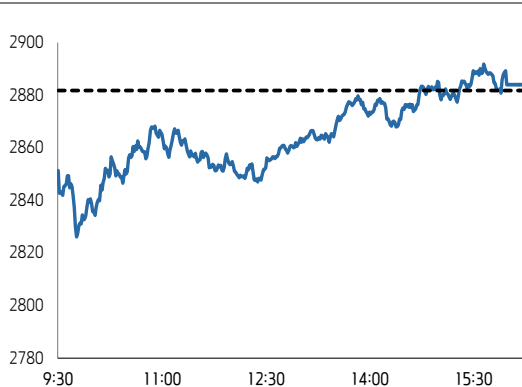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경기 둔화 우려 속 공격적 통화정책 기대

미 증시는 백악관이 미국 기관과 화웨이의 거래 중단 조치를 발표한다는 보도 이후 투심 악화로 하락 출발. 이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경기둔화 우려에 주목하며 매물 출회.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낙폭이 축소. 특히 에반스 총재의 발언 이후 매수세 유입(다우 -0.09%, 나스닥 +0.38%, S&P500 +0.08%, 러셀 2000 -0.09%)

미 증시는 ①경기 둔화 이슈 부각 ② 에반스 총재 발언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 장 초반 미 증시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격화되자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더불어 국제유가는 4.7% 급락했으며, 10년물 국제금리가 장중 한 때 1.6%를 하회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남. 한편 금은 2.4%나 급등 해 1,500 달러를 상회하고 엔화가 달러 대비 0.4%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 부각.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격화 및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짐. 이는 결국 투자심리 위축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뉴질랜드와 인도,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에 돌입. 한편,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어 더 많은 역풍에 직면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주장. 특히 에반스 총재는 “많은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재조정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다른 중앙은행들도 재조정 가능성이 높다” 라며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강조. CME 는 Fedwatch 를 통해 9 월 금리인하 확률을 100%라고 발표한 가운데 50bp 인하 확률을 지난주 2%에서 현재는 33%로 상향 조정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하 기대를 높임. 주식시장은 에너지 업종이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부진해 금융주와 더불어 하락을 주도. 그러나 에반스 총재의 발언 이후 급락했던 금융주를 비롯해 여타 종목들이 낙폭을 축소하거나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긍정적으로 변화.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목명	Close	D-1	지수	종목명	Close	D-1
KOSPI	한국	1,909.71	-0.41	홍콩	항셱	25,997.03	+0.08
KOSDAQ	한국	564.64	+2.38	영국		7,198.70	+0.38
DOW	미국	26,007.07	-0.09	독일		11,650.15	+0.71
NASDAQ	미국	7,862.83	+0.38	프랑스		5,266.51	+0.61
S&P 500	미국	2,883.98	+0.08	스페인		8,746.10	+0.54
상하이종합	중국	2,768.68	-0.32	그리스		837.56	-0.82
일본		20,516.56	-0.33	이탈리아		20,538.85	-0.4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에너지 업종 부진

CVS헬스(+7.45%)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급등 했다. 위험관리 제품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슈어런트(+7.53%)도 개선된 실적을 발표한 이후 급등했다. 마이크로칩테크(+3.95%)는 양호한 실적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1.45%), 브로드컴(+1.35%) 등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디즈니(-4.94%)는 부진한 실적 발표 여파로 하락 했다. 스카이웍(+2.88%)은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6% 하락 중이다.

한편, JP모건(-2.17%), BOA(-1.86%), 웰스파고(-2.39%)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특히 금리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장중 한때 금융주들은 4%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리얼티인컴(+2.08%), 벤틀라스(+3.07%) 등은 리츠금융 회사들은 금리가 하락하자 강세를 보였다. 코노코필립스(-1.68%), EOG리소스(-0.93%)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하락세를 이어갔다. 넷플릭스(-1.87%)는 디즈니의 스트리밍서비스가 11월에 시작한다는 소식 여파로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23%	대형 가치주 ETF(IVE)	-0.09%
에너지섹터 ETF(OIH)	-1.78%	중형 가치주 ETF(IWS)	+0.31%
소매업체 ETF(XRT)	-0.22%	소형 가치주 ETF(IWN)	-0.11%
금융섹터 ETF(XLF)	-1.33%	대형 성장주 ETF(VUG)	+0.47%
기술섹터 ETF(XLK)	+0.62%	중형 성장주 ETF(IWP)	+0.5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71%	소형 성장주 ETF(IWO)	+0.18%
인터넷업체 ETF(FDN)	-0.41%	배당주 ETF(DVY)	-0.19%
리츠업체 ETF(XLRE)	+0.9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2%
주택건설업체 ETF(XHB)	+0.8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1%
바이오섹터 ETF(IBB)	+0.27%	미국 국채 ETF(IEF)	0.00%
헬스케어 ETF(XLV)	+0.03%	하이일드 ETF(JNK)	+0.02%
곡물 ETF(DBA)	-0.13%	물가연동채 ETF(TIP)	+0.05%
반도체 ETF(SMH)	+0.55%	Long/short ETF(BTAL)	+0.7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29.08	-0.76%	-7.22%	-9.53%
소재	357.46	+1.32%	-2.21%	-0.92%
산업재	629.32	-0.11%	-4.00%	-2.33%
경기소비재	923.86	+0.31%	-3.17%	-5.13%
필수소비재	605.27	+1.16%	-0.98%	-1.15%
헬스케어	1,040.86	-0.03%	-1.25%	-3.81%
금융	443.89	-1.21%	-5.44%	-4.40%
IT	1,359.70	+0.64%	-4.07%	-3.47%
커뮤니케이션	163.64	-0.42%	-3.27%	-3.63%
유틸리티	305.06	+0.22%	+1.05%	-1.41%
부동산	234.35	+0.93%	+1.12%	-1.0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5% MSCI 신흥 지수 ETF 도 0.45%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순매수(+368 계약) 한 가운데 1.65pt 상승한 254.6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13.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장중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뉴질랜드를 비롯해 아시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미 연준 위원들이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하 정책은 달러화의 약세를 촉발 시켰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세폭이 축소되었다.

결국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진 점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지만, 이로 인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하 정책 기대가 높아진 점, 중국의 역외 위안화가 안정을 찾은 점 등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한편, 오늘은 한국 8 월 옵션만기일이다. 최근 외국인의 현물 매도는 대부분 비차익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 A 주의 MSCI EM 편입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리벨런싱 날짜는 27 일(적용일 28 일)이기는 하지만 옵션만기일이라는 이벤트가 있어 이를 통해 외국인의 매매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반등이 예상되나 외국인의 수급 규모에 따라 변화폭이 결정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독일 산업생산 부진

8 월 독일의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5% 감소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mom +0.1%)는 물론 예상치(mom -0.5%)를 하회한 수치다. 여전히 독일의 부진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4.7% 급락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급락 했다. 특히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된 여파로 미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금리인하 등을 단행하자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EIA 는 지난 주 원유 재고가 시장이 예상했던 280 만 배럴 감소가 아니라 239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한 점도 급락 요인 중 하나였다. 결국 국제유가는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진 점이 부담이었다.

달러화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영향도 달러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중국 역외 위안화는 무역분쟁 격화 우려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나, 장 후반 약세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피 현상으로 10년물이 장 중 한 때 1.6%를 하회하기도 했으나, 상승 전환하였다. 장 초반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언급한 점이 하락 요인 이었다. 그러나 주가지수가 반등에 성공한 데 이어 10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이 12 개월 평균(2.46 배)를 하회한 2.20 배에 그치고, 간접입찰 또한 12 개월 평균(63.4%) 보다 낮은 55.7%에 그치는 등 국채수요가 부진하자 국채금리는 상승에 성공 했다.

금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하기도 했으나, 경기 둔화 우려속에 하락기도 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36% 하락 했으나 철근은 0.35%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1.09	-4.74	-12.79	Dollar Index	97.600	-0.03	-0.93
브렌트유	56.23	-4.60	-13.56	EUR/USD	1.1204	+0.04	+1.16
금	1,519.60	+2.39	+5.69	USD/JPY	106.21	-0.24	-2.36
은	17.196	+4.57	+4.82	GBP/USD	1.2143	-0.23	-0.13
알루미늄	1,754.00	-0.28	-2.50	USD/CHF	0.9751	-0.13	-1.90
전기동	5,705.00	+0.39	-3.75	AUD/USD	0.676	-0.01	-1.24
아연	2,261.00	-2.12	-7.49	USD/CAD	1.3294	+0.10	+0.78
옥수수	414.00	+0.36	+0.98	USD/BRL	3.9704	+0.20	+4.17
밀	488.25	+0.88	+0.21	USD/CNH	7.0833	+0.42	+2.51
대두	866.75	+0.12	-1.67	USD/KRW	1214.90	-0.03	+2.69
커피	96.90	-0.15	-2.76	USD/KRW NDF1M	1213.00	+0.03	+2.1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714	+1.16	-30.05	스페인	0.167	-6.00	-11.30
한국	1.247	-0.80	-13.80	포르투갈	0.181	-7.50	-15.90
일본	-0.191	-0.90	-3.80	그리스	1.970	-6.50	-5.10
독일	-0.581	-4.50	-14.10	이탈리아	1.416	-9.60	-12.40